

교회소식 Bekanntmachungen der Gemeinde

마인츠중앙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ir heißen alle herzlich willkommen und segnen im Namen des Herrn.

-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주인이 되신 우리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합니다.
- 밀알에서 진행한 우크라이나를 위한 구호물품 전달을 위해 폴란드를 남윤범, 다빗 트렌축 집사님께서 잘 다녀 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다음주일 (5/15) 예배 설교는 박광천 목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예배 후에는 제직회가 있습니다.(오후5시)
- 아비투어를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고성찬, 이재화, 장하선)
- 청년부 수련회(50여명)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기도와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김해미 자매 마스터 졸업 연주가 5월11일 19:45 에 마인츠 음대 (Jakob-Welder-Weg 28)에서 있습니다.
- 2022년 상반기 교회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5/15(주일) 오후 5시 : 제직회
· 5/19(목) : 원로회 소풍 (인도: 흥근희 집사)
· 5/26(목) : 전교인 친목회 (Mühlweg 21, 55270 Sorgenloch)
· 6/12(주일) 한독연합예배
- 코로나 양성이 나오신 분들은 위기관리팀(이정수장로,김민성 집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12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Johannes 8:12 Da redete Jesus abermals zu ihnen und sprach: Ich bin das Licht der Welt. Wer mir nachfolgt, der wird nicht wandeln in der Finsternis, sondern wird das Licht des Lebens haben.

섬김이

담임목사 한성호
교육전도사 장재성
시무장로 소병찬,이정수,이태성

예배 및 봉사구역

날짜	기도	안내
05.08	고광진	
05.15	장은준	
05.22	기현서	
05.29	장바우	

후원 선교지

- 키르기스스탄(다니엘 P)
- 코소보(S00)
- 독일 쾰른(N00)
- 케냐(L00)
- 베트남(L00)
- 타지키스탄(L00)
- 마다가스카르(B00)

온라인 헌금 안내

IBAN: **DE78 5519 0000 0962 2740 15**
BIC: MVBMD55

:: 온라인 헌금 시 입력 항목 ::
십일조 - Zehntel
감사헌금 - Dankopfer
주일헌금 - (Sonntags) Kollekte
월경헌금 - Monatskollekte
선교헌금 - Spende f. Mission
건축헌금 - Spende f. Kirchenbau

*온라인 헌금은 비교란에 위 항목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인츠 중앙교회

AD.1986 Evangelische Kirchengemeinde Mainz Chung-Ang e.V.

원로목사 박의석
담임목사 한성호

목양실. 06131 380 9981

Berliner Str.37 55131 Mainz
www.machung.net

2022년 표어

힘을 다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후서 5:9)

Darum suchen wir auch unsere Ehre darin, daß wir ihm wohlgefallen, sei es daheim oder nicht daheim. (2.Korinther 5:9)

제37권 19호 2022년 5월 8일

주일예배

1부 12:00

인도자: 한성호 목사

찬 양	Lobpreis		찬양부
※ 묵 도	Eingangsgebet		다함께
※ 찬 송	Lobpreis	199 장	다함께
※ 신앙 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함께
성시 교독	Wechsellesung	98 문	인도자
대표 기도	Gebet		고광진 집사
봉 헌	Kollekte	575 장	다함께
성경 봉독	Schriftlesung	출애굽기 20:12	인도자
찬 양	Lobpreis	주는 나의 목자	성가대
말씀 선포	Predigt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한성호 목사
광 고	Abkündigungen		인도자
※ 찬 양	Schlusslied	579 장	다함께
※ 축복 기도	Segen		한성호 목사

※ 표는 일어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안내

- 주일 1부예배 주일 12:00 본당
- 수요 예배 수요일 20:00 본당

- 주일학교예배 영유아/유치
유년/초등 주일 12:00 별관
- 청소년부예배 주일 12:00 별관
- 청년부 예배 금요일 20:00 본당

오해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 와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은 들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은 오해를 오랫동안 해왔던 우리들입니다.
 이제는 자녀로서 진정한 아버지의 즐거움을 위해 후회 없는 효도를 다짐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정호 목사

초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마인츠중앙교회는 주님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기쁨을 나누는 신앙공동체, 가족공동체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힘쓰는 예배공동체입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더불어 행복한, 이곳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공동체
 마인츠
 중앙교회는

그분의 소유

단언컨대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그것은 그 아이들이 그분의 소유이며, 단지 부모의 관심과 보살핌에 맡겨졌을 뿐이기 때문이다.
 - A.W. 핑크

Most assuredly God will require an account of the children from the parents' hands, for they are His, and only lent to their care and keeping.
 - A.W. Pink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이름과 역할을 주시면서, 자신의 귀한 보물을 이 땅의 부모들에게 잠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뜻과 방향에는 주님의 마음과 사랑, 그의 계획하심이 녹아 있어야겠죠.

그러고 보니 '부모'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첫째되고, 중요한 임무가 자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고의 사역지,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시느라 애쓰시는 모든 부모님들!

주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기도제목

1. 아비투어를 준비하는 자녀들(고성찬, 이재화, 장하선)에게 건강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충기로 충만케 하옵소서.
2.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감염이 되어도 큰 증상없이 지나가게 하시고 후유증 없이 곧 완전하게 회복시키시옵소서.
3.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상반기 계획된 교회 일정을 친히 인도하옵소서.
4. 안수집사를 위한 기도
 -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 교회를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게 하옵소서.
5.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멈추게 하옵시고 코로나와 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옵소서.
6. 선교사님의 삶을 지키시고 사역 가운데 선한 열매를 주시며 성령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나, 우리, 교회 Vision 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예수공동체가 됩시다.